

◎ Advances in Library Education

圖書館學 教育의 進展

Guy A. Marco 著

李 明 珍 譯

(弘益大學校 中央圖書館)

이 글은

George Chandler ed.

International Librarianship.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2. p140-152 에 실린 Guy A. Marco (Dean, Library Science, Kent State University)의 "Advances in Library Education"을 번역한 글이다. (譯者註)

"전진"이란 "변화" 이상의 것으로 이 "전진"이란 단어는 "진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학의 전진이라 일컬을 경우, 이는 곧 진보적인 발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외출기 길을 따라가거나 척도에 있어 상승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진보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서관학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어느정도 고려를 한 다음, "전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전문직 훈련의 목표는 전문직 그 자체의 목표에서부터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장래사서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은 사서직이란 전문직에 있어서 봉사정신을 갖추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서직이 이루고자 노력하는 바를 안다면, 우리는 그 노력에 꼭 알맞은 교육계획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 상황에서 간주되어진 실제 순간적인 목표에 반하여, 사서직의 이상적인 목표를 확인하는데 실로 유용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사서직의 철학"이라는 엄숙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반성과 토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매혹적인 주제에 대하여 논쟁하려는 유혹을 이길 것이다. 그 대신,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되게 조화시키는 문제를 뒤로 미루고 혼합된 이론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철학을 유출하여 보자. 이 시점에서, 본인은 사서직의 이상적인 목표는 각 개인의 교육적, 정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제시할 정도로, 사서직은 보완적이고 지원적인 역할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숭고한 목표가 의미있는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면, 사서직의 지식 기저에는 많은 지적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서들의 훈련계획에 있어 서로 일치하는 요인들을 가리킨다. 이제 사서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그들이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몇가지 지적하여 보겠다. 그중 몇가지는 매우 분명하다. 예를 들어, 사서들이 그가 속해 있는 도서관의 장서와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편목과 분류기능에 대한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도서와 서지구성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또한 분명하다. 그러므로 도서관학 교육은 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분야를 포함하는 과정을 설치하였다. 그리 분명치 못한 것으로는 개인, 혹은 사회의 정보 요구에 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공식강좌의 종류와의 관계이다. 실로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산업화된 국가에 있어 외적존재인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에서 그리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생국가에 있어 그들의 가치는 아직도 매우 큰것으로 여겨진다.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의 또 다른 면은 각 주제 자체에 대한, 다시 말해 그가 근무하는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인식이다. 체계적으로 인쇄물이 급증함에 따라, 사서들은 장서에 내포된 주제, 문제점, 그리고 저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한, 그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참고업무를 행하는 그의 능력은 피상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있어 문학, 과학, 미술사,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 강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각국의 도서관학 교육자들 간에는 공식 도서관학 교육이 일반주제에 대한 대학교육의 바탕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일반과목과 도서관학과목을 동시에 조화시켜 현대 사서직에 기초를 둔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일반적으로 모두 동

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쓰련에서는 이 두 범주의 과목들이 대등한 연구계획하에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북미에서는 대학원에서 전문적 도서관학 교육을 받기 이전에, 대학에서 일반과목을 연수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종합적인 교육계획에 있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실한 요구—장서를 이루는 주제와의 밀접한 관계—의 보다 깊은 뜻은 주제의 전문화, 그리고 봉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들의 유형에 대한 특수화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제문헌이 광대하고 학구적, 혹은 과학도서관 이용자에게 비하여 일반 대중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특수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 특수한 이용자—어린이, 예술가, 사업체의 중역 등을 포함할 수 있는—를 위한 도서관 업무의 특수한 구성과 봉사에 관한 강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한 이용자에게 대하여 집중적 봉사를 하는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좁은 주제에 관한 깊은 지식은 도서관학 교육 자체에 있어 직접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받는 종합적 교육중, 비도서관학적 요소에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 학교는 그들의 문헌과 서지적 구성을 통하여 전문화된 주제의 일정한 부분에 초점을 두도록 노력할 수도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가 선택한 전공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는 타대학교의 타과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론적 분석에서, 우리는 도서관학 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를 수행하는 여러종류의 과정, 혹은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았다. 그것에서 우리는 사서적 훈련분야의 “진전” 혹은 “진보”라는 문제를 추구하여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과거 3년 내지 5년만에 있었던 도서관학 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서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이 몇개월 이내에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많은 도서관 학교들이 전통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1년 과정도, 전문적 교육을 받기 이전에 장기간의 일반주제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도서관학 교육계에 있어 진정한 진보의 한 가지 증거로, 전문적 교육계획에 요구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문을 연구한 이후에 이 계획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최근 몇나라에서 이러한 종류의 진진이 있었다. 그중 몇가지를 들어 보겠다.

북미에서는, 석사과정으로 끝맺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가 전문직에 있어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로운 대학원 과정중에 1968년 부터 1971년 사이에

시작되어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으로 University of Alabam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Puerto Rico, University of Alberta와 Nova Scotia 에 있는 Dalhousie University를 들 수 있다. 모두 합쳐 120여개를 넘는 대학원의 도서관학 과정이 미국에 있으며, 캐나다에 8개가 있는데, 이 중 55개가 ALA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다. 이 인가를 받은 학교중 19개는 1965년 이후의 것이었다.

세네갈에서는 1967년 Dakar University에 School of Librarian이 설립되었다. 1965년에 개교한 Ghana Library School에서는 1967년부터 대학원 수료중 수여를 시작했다. University of Teheran은 1966년에 이 과정을 신설하고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양측에 모두 실시하였다. 호주에서는, 3개과정이 새로 설립되었다고 보고 되었는데, 우선 Queensland Institute of Technology가 1972년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것이며, Canberra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이 1972년에 대학원 과정을, Tasmanian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이 1972년에 이를 신설할 것이며, 3년 이내에 대학원 강좌를 시작할 예정이다.

Philippine Normal College는 필리핀의 3개의 다른 도서관학 대학원과 함께 1968년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가장 새로운 도서관학 대학원은 Bombay University(1967)와 Banaras Hindu University (1965)이다. 태국에서는 Chulalongkorn University가 최초의 석사학위를 1966년에 수여하였다.

영국에서는, Sheffield University에서 1968년에 사서적 석사와 정보과학 석사의 두 과정이 소개되었다. 일찌기 영국의 다른 학교에서도 인정할만한 논문을 발표한 학생들에게는 석사 및 박사학위 획득이 가능하였지만, 특별한 과정과 관련된 학위를 제공하기로는 이것이 최초였다.

본인은 이 학교가 도서관학 교육의 진정한 발전의 한 면—도서관학 교육을 대학원 과정에서 실시하는—을 나타내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특정한 학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도서관학은 이러한 기초위에 박사학위 과정으로까지 보다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미국의 18개 대학중 10개의 대학이 과거 5,6년동안에 이 과정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자면,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of Pittsburgh, Syracuse University, Florida State University, Indian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Wisconsin,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Texas, Texas Woman's University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이다. 캐나다에서

는 University of Toronto에서 박사과정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학위수여의 유일한 학교가 될 것이다.

인도에서는 Andhra University가 인도에서 두번째로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파키스탄에서는 1967년 University of Karachi에 최초로 이 과정이 설치되었다.

최근에 실시되는 대학원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유형의 진보에 관한 예들을 보았다. 첫째, 세계적으로 도서관학 교육—서기적이라기 보다는 전문적인—이 고등교육수준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 점점 크게 받아들여져 있고, 이와 관련되어 두번째로 대학원 수준에서 행하여지는 교육기간의 연장에 대한 움직임이 커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얻고도 공식적 교육이 끝났다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열성과 학생들은 아마도 곧 바로 중국의 목표로 여기는 박사학위로 그 뜻을 돌 것이다. 그가 비록 박사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석사 이후과정(Post-Master program)으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 과정은 대부분 최근에 신설되었다. 이것은 박사학위 과정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식적인 교육의 햇수를 늘리는 것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적 시도로는 석사학위를 위한 대학원 과정의 기관을 연장하자는 의견이다. 1970년 대부분의 캐나다 도서관 학교는 도서관학 석사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는 양자택일할 수 있는 1년과정과 2년과정을 소개하였다. 미국이나 그의 여러나라의 교육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매우 흥미있게 관찰하고 있다.

교과과정상의 진보중 또 다른 양상은 보다 더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특수한 유형의 요구에 집중적으로 훈련이 가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특수화에 대한 유별난 노력이 몇몇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쏘련에서도 현재 강력하게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asfer교수는 “숙련된 사서들을 위한 교육제도의 발전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세분화된 학위의 증가이다”라고 말하였다. 쏘련에서의 이러한 운동의 원칙적인 추진력은 과학기술도서관의 요구로 향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교육계획은 심사숙고하에 실질적인 주제—물리학, 화학, 지리학—와 그 분야의 서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문헌검색, 다큐멘테이션, 기계화에 대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ALA에서는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공식적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대학원 과정에 “전문적 도서관학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집중적인 전문화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68년 영국의 Schurr & Saunders가 “과학기술도서관 및 정보업무를 위한 교육및 훈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술 정보 및 정보검색에 관하여 전문화된 강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몇몇의 예만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의 새로운 과정과 계획이 꽤 많이 나타났다. 1964년 델리의 Indian National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에서 1년간의 대학원 과정이 소개되었다. 또 같은 해, 켈커타에 있는 Indian Association of Special Libraries & Information Centers에서 6개월간의 대학원 과정 수료후 특수 사서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북미의 도서관 학교들도 예상되어 지던바대로 특히 정보처리를 위한 기계화 및 컴퓨터화한 기술과 관련하여 특수도서관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매우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1년동안, 미국과 캐나다대학에 이러한 38개의 과정이 시행되었다. 바르샤바에서는 정보검색 과목을 두었으며, 베를린의 Humboldt University와 Berlin School of Librarians에서는 다큐멘탈리스트를 위한 강좌를 설치하였다. 최근 영국에서는 로크보로우에 특수도서관 사서직 센터와 정보과학센터의 발전을 보았고, 또 세필드, 뉴캐슬, 애버리스트워드, 벨레스트트등에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본인이 봉직하고 있는 Kent State University에서 실시되는 두가지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길 바란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북미도서관 학교의 그것들과는 달리 다소 독특하다고 본다. 첫째, “도서관내의 자료처리”를 “편목, 수서업무, 정기간행물처리, 대출순환, 장서점검 및 참고 업무, 인사 및 예산업무를 포함한 도서 행정면등에 컴퓨터와 기계를 이용하는 일, 체계분석”으로 여기고, 둘째 “도서관내의 정보검색”이란 더 한층 진보된 과정을 살펴 보면 “정보조직의 유형, 등위색인 작업, 자동색인 및 초록 작업, 평상 업무, 회고연구봉사 hardware와 software”인 것이다. 학생들은 이론뿐만이 아닌 기구사용실습 및 실제조직의 관찰을 통하여 도서관과 서지업무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가치를 매우 깊이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이 방면의 창시자격인 Ohio College Library Center에서 MARC조직이 어떻게 이용되어지는가를 알았다. 당 센터에는 MARC테잎에 의하여 처리된 책이던 어떠한 것이든, 어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가를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고, 또 당 센터의 협동회원인 도서관이라

면 어느 곳이라도 remote access에 의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도서관 및 기계화 업무를 위한 요원의 훈련에 있어 최근에 노력을 기울인 이러한 몇가지 예 외에도,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다른종류의 특수화를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사서직의 다른 분야인 법률, 의학, 음악, 미술, 고문서, 지도 및 귀중도서등에 대하여 완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현재 수강할 수 있다. 또 초중 및 중등학교 사서를 위한 특수과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University of Maryland에서는 특이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흑인사서들로 하여금 대도시에 살고 있는 “정보에 어두운”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학 교육의 진보에 관한 토론의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교수방법의 발전이다. 여기에서도 오로지 혁신이나 실험에 대한 논평은 피하고, 도서관학교육의 목표를 진취시키게 될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가져 보겠다. 우선 UNESCO에서 발행된 Josefa E.Sabor의 유명한 저서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을 인용함으로써 본 논제를 떠나가기로 하자. Sabor 교수는 이 책에서 본인이 이제 다루고자 한 몇가지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Sabor 교수가 쓴 아래의 서술은 근본적으로 상관된 문제—공식적 교실 강의에 동의하는 측과, 학생들이 주관하는 조금 어설픈 토론에 동의하는 측과의 논쟁—를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젊은 이들이 단지 일련의 독해 숙제—흔히 서로 모순되는—와 교실에서의 강의만으로, 그들 자신이 이 책을 읽고, 필수적인 분석·평가후, 정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경우 막상이다.”

이것은 도서관학 교육자들간에 전통적인 입장이며, 또한 전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에 걸쳐 가장 보편화된 태도이다. 북미에서는 많은 수의 교실강의가 공식 강좌로부터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본인은 어찌서 북미의 입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진보적이라고 여기는가를 말하여 보겠다.

우리는 우선 북미의 전문적 훈련이 대학원 수준에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다소 나이가 들었다는 점이다. 또 북미 대학 도서관관들은 입을 자료가 책, 잡지의 형태로 도서관학 전분야에 걸쳐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이 분야에는 상근하는 교수들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많은 경험과 높은 학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조합되어, Sabor교수가 제시한 방해물들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날 공부할 주제에 관한 몇가지 잡지 기사 및 책을 자세히 읽어 본다. 교수는 교실에서 자극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로부터 대답을 요구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설득되거나 흥미를 가질 수 없는 다른 견해들이라도 발표하길 권한다. 그의 목적은 기존 사실을 늘어 놓는 것보다 질문과 이에 대한 비평의 방법을 추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일때,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기성세대에 의지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목표는 더욱 고취되는 것이다.

읽을 자료가 충분치 못한 나라에서의 이러한 방법의 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을법하다. 본인은 이것이 교수들에게는 더 부가되는 책임—조그마한 자료원에서 사상을 추출하고, 토론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세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보다 광범하게 끄집어 내야 하는—을 부여하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계승될 수 있으리라 본다.

어떤 과목에서는, 자유토론이 효과적인 것이 못된다. 예를 들어 편목강의에 있어, 이 방법으로는 많은 이득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미 공인된 원칙, 혹은 규칙을 설명하는 것과 실습감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토론이란 강한 주관적 요소를 지닌 주제, 즉 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위치나 역할, 도서관 자료선택, 대규모 도서관에서의 내부조직 및 관리에 따른 문제등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Sabor교수는 지나치게 평범하고 비현실적인 방법에 의한 도서선택 교수법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 거의 정당화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법이 그녀의 저서의 개요와 독서 목록에서도 암시되었다. 그러나 그 개요에는 북미대학의 현대 강좌의 입장에서 볼 때, 고대 강좌의 흔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중도서관을 위한 도서선택에 있어, 각 도서를 선정할때 작가의 자질이라든가, 문체에 관한 평가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지 않으며, 도서의 형태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는다. 도서관의 목표는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적, 교육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므로, 도서관 학교의 목표 또한 이러한 요구에 알맞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소개시켜주는 것과, 또 유사한 자료가 입수될 경우 비교 검토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대중도서관에 있어, 어떠한 책—예를 들어 소설, 혹은 정치서적—에 대한 진가 혹은 가치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어떠한 책이나 주제, 혹은 자료의 유형에 대한 대중의 흥미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대중 흥미에 가장 적합한 작품을 식별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어, 사서들의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미대학의 도서선택 과정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검열의 자유, 혹은 지성의 자유이다. 이것은 교실에서 행하여지는 토의에 알맞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논제가 된다.

의설이라고 판명된 책, 혹은 필름등에 관한 검열과 같이 주관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 도서선택을 주장하는 학급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보스턴에 있는 Simons College의 Kenneth Shaffer에 의하여 도서관학 교육에 소개된 이 방법은 한 학급으로 하여금 주제에 관련된 실제(혹은 가상의) 사건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결론지워지지 않은채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단지 사건에 내포된 문제만을 보고 그 해결책은 보지 않는다. 학생들은 사건을 놓고, 분석과 토의를 거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으며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것에 대한 결정을 시도하여 본다. 북미 도서관 학교들은 특히 관리와 선택을 다루는 과정에 이 사례연구 방법을 널리 사용한다.

또 하나의 새로운 교수방법이 이른바 Simulation이다. 학생들은 각 역할을 맡아 도서관에서 빈번히 조성되는 상황을 연출한다. 도서선택 과목에 있어, 학생들은 대중도서관이 보다 호화스러운 "Men's magazine"을 예약구독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짓기 위하여 모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혹은 도서관 평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연기해낼 것이다. 각 연기자들은 전형적인 직원을 예시하리라는 관점에서 가능한한 훌륭한 연기를 해낸다. Simulation을 끝낸 후, 나머지 학생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기에 관해서 논평을 가한다. Simulation은 참고도움을 원하는 이용자와의 대화, 인사문제 처리와 또 다른 부문에도 역시 적당하다.

본인은 이러한 활동은 실질적인 준비가 동반되어야만 그 수행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학생들은 Simulation 연기에 있어 즉흥적으로 지어내서 답변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또 이것이 인생 경험의 서막으로서도 가치가 있기는 하겠지만—그러한 문제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문헌연구가 없이 강의실에 들어 온다면,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토의, 사례연구, Simulation 등은 학생들이 이미 터득한 것 위에 예리한 쫓점을 가하여 구체화 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교수방법이 그의 시간절약이라는 의미에서 도입되어 쓰이고 있다. 대학원 연구과정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학생들(및 교수들)이 각 과목을 이수하는데 소비되는 총 시간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수반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기본과목에선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자습을 통한 한가지 방법이 있다. 그 예로 Kent State University의 편목, 참고업무, 도서선택, 도서관조직의 기본강의는, 정규과정과 앞서 소개한 숙달테스트를 치루게 되는 자습과의 양자택일로 되어 있다. 근면한 학생은 방학기간중 가정에서 자습을 통하여 하나, 혹은 두학기의 내용을 독파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여가 시간이라도 그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습과정이 "계획된 학습(Programmed learning)"으로 고안되어 신설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이러한 혁신은 단지 과거 대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하여 독자적으로 공부하던 관계적인 방법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진진—은 지금 자습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조직적 안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흔히 대학과정이 가정의 T.V.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University of Illinois에서는 어린이 문학에 T.V. 과정을 발전시켰으나, 도서관학 교육에서는 이 매개체를 잘 이용치 않는다.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는 도서관학교 건물내에서 T.V.가 강의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폐쇄 회로(Closed Circuit)" T.V. 방송인 것이다. 이것의 목적은 매우 큰 학급(어떤 경우, 몇백명)을 교수 및 그가 예시하는 자료와 시각적 근접을 깨뜨리지 않고 조화시키는 데 있다. 본인은 도서관학 연구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접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정 강좌를 할 수 있는 T.V.의 강력함을 진보적인 것으로 보고, 또 전시에 예증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폐쇄 회로" T.V.방송의 양상을 또한 진보적인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매우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그것 자체가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 "진진"이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는다.

이른바 시각적 보조자료들이 북미 도서관 학교의 교수들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섀체슬라이드, transparencies, 필름, 필름스트립 및 다른 시각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이 여러과정의 단면을 예시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법으로 스크린에 투영된다. 도서관학교를 위하여 대출할 수 있는 많은 필름들 중에, 컴퓨터 조작을 예시하여 주고 기계화된 정보검색을 나타내주는 필름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졌다. 또 다른 인기있는 필름들은 초등도서관의 기능을 보여 주는 것. 혹은 미국에서 호칭되길 "매개 센터"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들이다. 이용가능한 필름 범위는 실질상 도서관 교육과정의 전 과목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토론이라든가 시각적 표현등의 새로운 교육방법이 교과서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책들은 계속 발행되고 또 읽혀지고 있다. 실제 꽤 많은 교과서들이 최근 영어, 혹은 여러 외국어들로 번역되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보의 한 증거이다. 참신하고 훌륭한 일련의 교과서들이 미국의 McGraw-Hill과 Libraries Unlimited 출판부에서 또 영국의 Hafner, London House, Pergamon, Lockwood, Bingley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 두나라 모두 도서관 협회에서 또한 활발하게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다. 신생국가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는 그 지방 언어로 된 도서관학 교과서의 부족이다. 그러나 어떤 유럽어들로도 이 사서직 강의 목적에 충분치는 못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로 방향을 돌려, 도서관 학교에서의 연구에 주어진 강조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이다. 또다시 미국의 예를 들겠다. 최근 몇몇 도서관 학교에서 도서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위한 유기적 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센터는 두가지 기능으로 연결지어졌다. 즉 특수화하고, 진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과 일차연구(Original Research)의 결과를 발간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센터중 최초로 설립된 것들은 University of Illinois와 클리블랜드에 있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그것이며, 지난 1960년대에는 버클리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Pittsburgh, Kent State University 그리고 Indiana University에 이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몇몇 도서관학교에서는 사서직의 잘 정비된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센터를 창설하였다. University of Pittsburgh의 도시도서관 연구 센터(Urban Library Research Center)와 켄트주에 있는 Ethnic Publication(미국 내의 소수 민족이 영어로 출판하는 출판물)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센터가 그것이다. 이 모든 연구센터는 그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그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이며, 과학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영국 도서관 학교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두 학교—Sheffield와 North Western Poitechnic—는 직원들의 연구에 중점을 두어왔고, 또 많은 과제에 대하여 외계로부터의 자금을 버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것에 덧붙여 꼭 하나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겠다. 1960년 델리에서 열린 UNESCO세미나에서 도서관 학교는 “도서관의 문제점들의 연구를 활발히 시작하라”고 촉구하였다. 이 이념은 그의 명백한 적당성과 유용성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 도서관 학교에 전면히 퍼져가고 있다.

오늘날 사서직의 복잡성을 직면하여 볼 때, 아무도

사서들이 도서관학교에서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은 위에 그의 전문적 연구를 마쳤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현직 사서들에게 훈련을 부가시키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사서들은 사서직의 새로운 발전과 사고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남아프리카 도서관협회와 University of South Africa는 사서들을 위하여 고차적인 과목을 포함한 장기간의 여름과정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1956년에 시작한 일련의 세미나 —혹은 연구집회—가 강력하게 그 범주를 넓히고 있다. 이 연구집회는 현직에 있는 사서들을 위하여 10일내지 2개월간의 차원높은 연구를 부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뽑힌 일단의 사서들이 1969년(2개월간)과 1970년(3개월간)에 열린 강연회에 초대되었으며 이 강연회를 매년 갖기로 계획하였다. 도서관내의 전자정보처리에 관한 UNESCO 강연회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University of Regensburg에서 1970년 4월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17개국을 대표한 50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콜롬비아 에메들린에 있는 Inter-American Librarian Scho에서는 남미 사서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또한 열성이었다. 의학사서를 위한 6개의 특수과정이 소개되었는데, 가장 최근것이 1970년 7월부터 11월까지 열린 것이었다. 올 6월에는 메들린에서 도서관의 자동화라는 주제하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세미나가 미국 주 기구의 후원을 얻어 개최되었다. 또 다른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봉사에 관한 세미나가 올해 초에 열렸다. 1970년 5월 남미 어딘가에서, Guyana대학이 경험있는 사서장들을 위한 3일간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것은 이 신생국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계속교육의 중요한 계획이 코펜하겐에 있는 Royal School of Librarianship에서 소개되었다. 1966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과정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부터 18명의 대표가 참가하였고, 또 이를 UNESCO에서 후원하였다. 그 목적은 사서직에 대한 정식 수업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로 이미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유망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세미나가 1968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부터 15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모두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

사서직 교수들을 위한 또 다른 세미나가 University of Delhi에서 열렸다. 영국에서는 매년 사서들을 위하여 다양한 단기 과정과 세미나가 영국도서관협회와 특수도서관 및 연구성협회(Association of Special Libra-

ries and Research Bureaux) 및 각 도서관의 후원을 얻어 개최되고 있다. 1970년에 소개된 몇개의 주제들은 주제편목, 영국정부간행물, 기체화, 마이크로 필름, 경영, 도서판매, 사회과학 문헌 및 화학문헌에 관한 것들이었다.

미국에서도 1965년 미국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령에 의하여 계속교육에 대한 커다란 자극이 일고 있다. 이 입법적 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 많은 세미나에 대한 정부의 재정담당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강습회”라고 부른다. 현재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금이 삭감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1971년과 1972년내에 그 기간이 2일에서 꼬박 1년까지 되는 28개의 강습회가 계획되어 있다.

계속 교육에 있어서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좋은 계획이 아직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없는 몇나라에서 세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에 발표된 어떤 기사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사서들을 더 교육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제 사서직 훈련에 있어 마지막 3가지의 진보된 면, 즉 학생의 자치관리, 도서관 학교간의 협조, 국제적인 전망의 발전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학관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관념을 매우 이상스러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난 5,6년간 각 학생들에게 학교의 정책결정에 발언권을 주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 도서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와 행정가의 연합인 관리자문기관(governing council)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 그 결과도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및 정책변경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책임을 질 때, 학교라는 공동체에 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며 학생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본인은 학생들도 또한 학교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주지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보편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에서의 이와같은 경향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 못하다.

도서관 학교 상호간의 협조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둘 이상의 학교에서 자료나 계획을 같이 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다. 아무튼 캐나다, 미국, 그리고 남미에, 도서관학 교육자간의 통신수단을 제공하고 또 공동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양식 및 직업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잠정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주는 도서관학교 협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체로서의 그와같은 협회의 완전한 가능성은 아직 실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주제는 도서관학교 및 도서관학 교육자들의

국제적인 관심이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 단일 국가의 테두리를 초월한 도서관 훈련의 범위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국제적 관심을 나타내주는 오래전 방법으로 “해의 유학”이 있다. 즉 학생들은 자기 모국을 떠나 희망하는 도서관학 교육에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났었다. 또 다른 일면은 여러 국가간의 도서관과 도서관 문제를 연구하는 “비교 사서직”이다. 이 과목은 북미와 영국의 도서관학교 강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비교사서직에서의 흥미는 각 도서관학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부터 도서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더해진다. 상기 도서관자료의 국제적인 수집은 University of Pittsburgh와 뉴욕, 브록클린에 있는 Pratt Institute에서 볼 수 있다. 출판물의 체계적인 교환은 때때로 이와같은 국제적인 수집의 발전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서는 미국 도서관 연례보고서의 사본을 웨일즈에 있는 College of Librarianship 과 파리에 있는 Bibliothèque National에 보내고, 그 대신 영국과 불란서의 도서관 보고서의 사본을 받는다. 우리는 또한 Chulalongkorn University, University of Philippines 및 University of Multa와도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념의 최종 단계는 관리 및 재정을 여러 국가가 분담하는 지역연구센터(Regional Study & Research Center)를 창설하는 것이다. UNESCO, IFLA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하여 몇가지 단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장려되고 있다. 콜롬비아에 있는 Inter-American Library School이 전 남미의 도서관 훈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지도 어언 20년이 되었다. 1967년 School for Librarians, Archivists and Documentalists가 UNESCOS의 지원을 얻어 세네갈의 Dakar University에 창설되었다. 이 학교는 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전역의 사서들을 훈련하는 책임을 맡았다. 동남아의 사서들간에는 7개국가를 위한 지역학교의 가능성이 토의되고 있다. UNESCO의 중점적인 지휘하에 좀더 광범위한 지역학교간의 연결을 발전시키자는 생각이 2년동안 IFLA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제 이 글의 끝을 맺어야 하겠다. 우리가 살며 본 모든 진전은 직업적 주요목적 이행을 위하여 공헌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시설의 확장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이 그의 연구에 소비하는 시간의 연장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적 교과과정을 위한 적절한 장소 및 범위를 설정하려 하고 있다. 전문화된 교육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들은 특수층의 독자를 위하여 봉사할 사서들을 교육시

(5면에 繼續)

과로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 일이 있다. 지방에 있는 국립이나 사립대학에 도서관학과를 설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도서관의 전국적인 분포 조절과 그 수준의 평준화가 그 나라의 도서관 발전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 학과 이름을 도서관학과로 하지 말고 정보과학이나 문헌정보학과로 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익할 것으로 믿고있다.

4. 새로운 커리큘럼 編成의 基本立場

도서관학과가 정보과학과 문헌정보학과로 그 이름이 변하기 때문에 교과과정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과명이 어떻게 되든 필요할때 커리큘럼은 변경되는 것이며 또 그동안 많이 변해왔다. 문제는 교육내용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령 참고봉사라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있어서 교수나 피교육자의 능력이나 사상에 따라서 그 학문적 수준이나 그 방법론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대학 강의의 장점이며 동시에 단점일수도 있다. 어느 중견 라이브리언이며 또 도서관의 책임자는 이런 말을 나에게 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 4개대학 도서관학과를 하나로 통일하여야 하겠다. 우리 도서관에 와서 일하는 4개 대학 졸업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며 기초적인 기술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약간 극단적인 말이지만 도서관 실무 책임자로서는 느낄 수 있는 당연한 말이다. 도서관학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도서관 현장에 나가서 빨리 적응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으면 될줄 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 어떤 수준의 도서관에 가서도 어떤 유형에 도서관에 근무해도 또 도서관 업무의 어느 부문에서 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기초적 능력을 발휘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어야 한다. 대학 도서관학과 학부과정에서는 그

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에서 그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A. 도서관에 대하여 충분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즉 도서관의 문화사적 의미나 도서관의 사회학적 기능에 대하여 하나의 뚜렷한 사상의 소유자로 길러내야 할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면이 허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학교에 대하여 간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칙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이겠다.

B. 합리적인 기술을 습득시켜야한다. 도서관 봉사에서 기술이 불필요한 부서는 하나도 없다. 다만 일반적 과 구별되는 기술부분에서 적어도 아마추어리듬에서 탈피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류나 목록 뿐만 아니라 색인이나 서지 초록까지의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학교시절에 실습 훈련 과정에서 충분히 습득시킬 필요가 있다. 도서관 학과 졸업생이 받는 오해중의 하나는 다른과를 졸업한 사람과 도서관에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이다.

C. 문화인 교양인이어야 한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은 대체로 교양인이며 인텔리겐차라들이다. 사서가 늘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문화인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도 문화인이며 교양인이어야 한다. 책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하며 문화적 센스가 예민해야 한다. 도서관학 교육의 어려움이 이런데에도 있다.

D. 정보과학 분야의 확충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당연히 정보과학분야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 대하여도 충실해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공업화 과정이 상상보다 그 템포가 빠른데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공헌하기 위한 방법이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도서관이 가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 한채 닥아올 세대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제변경에 따라 학교마다 직면하는 커리큘럼 편성에서 위에서 말한 몇 가지 기본 요소가 고려되기를 바란다.

(19面에서 繼續)

키기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지도방법 및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교수들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도서관의 체계적인 연구로, 사서직 학교들은 직업의 지식 근원을 더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실제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나, 연구집회 및 강습회의 증가로 도서관학교는 현직 종사자들에게 현재의 발전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 학교는 정

책 및 기준설립과 자료분담을 위하여, 협동적인 노력으로 그들간에 통신수단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도서관학 교육자들은 국제관심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그들의 교과과정과 학생들 사고의 한계를 없애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교육학교의 발전안에,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 모든 국가가 사서직의 진보에 참가할 수 있는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법제제적인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